

# 만수르, 로드FC 제주 '100만불의 사나이'

### 3분34초 초크로 서브미션... 권아솔 "다시 일어설 것" 제주출신 박석한·윤태영·신지승 영진스42 승리합창

로드FC 053 제주대회의 최대 이벤트인 '악동 파이터' 권아솔(키 코리 아MMA)과 만수르 바르나위(프랑스) -70kg급 파이널 경기는 만수르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18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로드FC 053 제주대회인 '100만불 토너먼트 최종전'에서 만수르가 저돌적인 모습으로 권아솔을 제압하며 1라운드 3분34초 만에 초크(목조끼)를 성공, 서브미션으로 챔피언 벨트를 챙겼다. 이로써 만수르는 이번 토너먼트 대회에서 5전 전승으로 '100만불의 사나이'에 등극했다.

만수르는 우승 소감에서 "가족과 친구에게 감사하고 오랫동안 경기를 준비했다"라며 "우승 상금 100만 달러로 내 소원이던 파리에 체육관을 하나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아솔은 "우선, 만수르의 우승을 축하한다"라며 "팬들에게 죄송하고 다시 일어설 것이다. 만수르가 꼭 챔피언 벨트를 갖고 있더라. 다시 도전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초 빅 이벤트로 주목받았던 로드FC 4경기는 제를 르 밴나(프랑스)의 부상으로 다소 심겁게 끝났다. 아오르끼라가 대타 허재혁(IB급)을 손쉽게 잡으며 승리했다. 이에 앞서 벌어진 프로 무대인 로드

FC 영진스 42 경기는 제주출신 선수들의 등용문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밴텀급(-61.5kg급)에서 박석한(싸우쿠다)이 일본의 쿠보 켄타(아수라)를 TKO로 누르며 제자 신지승과 함께 승리의 찬가를 합창했다. 전국 킥복싱 챔피언 윤태영(더킹)

은 웰터급(-77kg급) 경기에서 시원한 원투 펀치를 적중하며 임병하(피니쉬)를 TKO로 무너뜨렸다.

신지승(싸우쿠다)이 -68kg급에서 압도적인 공격력을 앞세워 지영민(병점MMA)을 심판 전원 판정승을 이끌며 프로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다만, '한라권' 양희중(락온)은 여성 밴텀급(-61.5kg급)에서 아쉽게 로렌 필러(미국·로드진 원주MMA)를 만나 선전했지만 0-3 판정패를

당했다.

이날 한라체육관에는 도민과 관광객, 중국인 관광객 600여명 등 수천 명이 대회를 찾았다.

김영식 로드FC 제주 대회장장은 "전 세계 격투기 마니아들을 제주로 불러 모을 수 있는 하나의 관광 콘텐츠로서 이번 대회가 제주관광산업에 작은 알이 됐으면 한다"라며 "이번 대회 유치로 새로운 관광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백귀기자



18일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로드FC 053 제주대회인 '100만불 토너먼트 최종전'에서 만수르가 저돌적인 모습으로 권아솔을 제압하며 1라운드 3분34초 만에 초크를 성공, 서브미션 승리로 '100만불의 사나이'에 등극했다.

## KIA 감독대행 체제 첫 위닝시리즈

### 양현종 7이닝 무실점... 키움은 롯데에 9-3으로 완승

KIA 타이거즈가 '박흥식 감독대행 체제'로 치른 첫 3연전을 2승 1패로 마쳤다. KIA는 19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에서 열린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방문경기에서 한화 이글스를 5-0으로 꺾었다.

박흥식 감독대행은 17일 대전 한화전에서 5-2 승리를 이끌었고, 18 일에는 2-5로 한화에 패했다. 주말 3연전 마지막 날인 19일 5-0으로 완승해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다.

승리의 주역은 단연 '에이스' 양현종이었다.

KIA 선발 양현종은 7이닝 동안 사사구 없이 3안타만 내주고 무실점으로 역투해 시즌 2승(7패)째를 챙

겼다. 최고 시속 148km의 직구와 날카로운 체인지업, 슬라이더를 구사하며 삼진 7개를 잡았다.

양현종은 5월 4경기에서 평균자책점 1.00의 패투 행진을 벌이며 부진의 늪에서 탈출했다.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는 키움 히어로즈가 롯데 자이언츠를 9-3으로 완파하고 시즌 첫 3연전 싸늘이 승리에 성공했다.

4위 키움은 롯데와의 주말 3연전을 모두 풀어 담고 4연패의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했다. 키움은 3연전을 싸늘이한 것은 올 시즌 처음이다.

9위 롯데는 4연패에 빠지며 시즌 30패(17승)째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 한화 김지현 KLPGA 두산 매치플레이 우승

### 1년 1개월 만에 개인 통산 5승 달성

한화 소속 김지현(28)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총상금 7억원) 우승을 차지했다.

김지현은 19일 강원도 춘천 라데나 골프클럽(파72·624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결승에서 김현수(27)를 6홀 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고 우승했다.

지난해 4월 롯데렌터카 여자오픈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개인 통산 5승을 달성한 김지현은 우승 상금 1억 7500만원을 받았다.

2016년 이 대회 결승에서 박성현(26)을 상대한 김지현은 당시 16번 홀까지 2홀을 앞서서 유리한 상황을

지키지 못했다.

17, 18번 홀을 연달아 내주고 연장에 끌려들어 간 끝에 준우승, 분투를 삼켰던 김지현은 3년 만에 다시 오른 결승에서 스디어 '매치 퀸'의 자리에 등극했다.

김지현은 이날 오전에 열린 준결승에서 이흥과 나이가 모두 같은 롯데 소속 김지현(28)을 1홀 차로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전날 16장에서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골프 여제' 박민비(31)를 물리치고 최대고비를 넘긴 김지현은 이어 열린 8장에서 도해 한 차례 우승이 있는 조정민(25)을 꺾는 등 험난한 대전을 이겨냈다. 연합뉴스



제주도선수단이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메달 18개(금 10·은 4·동 4)를 획득, 금의환향했다. 특히 대회 마지막 경기로 치러진 플로어볼에서 우승하며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 제주, 전국장애학생체전 메달 18개 '금의환향'

### 플로어볼 대회 3연패... 수영 김영빈·역도 강다민 3관왕

제주도선수단이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메달 18개(금 10·은 4·동 4)를 획득하며 금의환향했다. 특히 플로어볼 종목에서 대회 3연패라는 금자탑을 쌓아올리며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다.

선수단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전북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 수영과 육상, 역도, 볼링, 플로어볼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수영 김영빈(제주사대부고) 선수가 3관왕을, 윤주현(월랑초) 선수가 2관왕을 각각 차지했다. 역도 강다민(제주중앙여중) 선수는 장애학생체전에서 지난 3년간 모두 3관왕

을 들어올렸다. 플로어볼 역시 대회 마지막 날 익산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결승에서 우승하며 전국 최강임을 자랑했다.

볼링종목에서도 제주학생선수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김수영(노형중)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김유림(제주영지학교) 선수는 포환던지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박종성 제주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최선을 다해준 선수와 임원 및 감독·코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있을 각 대회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밝혔다.

백귀기자 haru@ihalla.com

## 남녕고 강상현 광주시장기 태권도 미들급 1위

강상현(남녕고 2·사진) 선수가 제21회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념 시장기 전국태권도대회에서 우승했다.

강상현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광주 빛고래체육관에서 열린 이 대회 남자고등부 미들급에서 5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32강부터 결승까지 큰 점수 차로 상대를 제압하며 탁월한 실력을 보였다.

준결승에서 김민규(경기 운전고)를 13-2로 제압한 강상현은 결승에서 김민석(경남체고)을 24-4로 압도하며 정상에 올랐다.



앞서 강상현은 8강에서 김정재(인천 강화고)를 24-4로, 16강에서 이진호(충북 체전고)를 22-2로, 32강에서 송훈(인천체고)을

18-8로 각각 누르며 승승장구했다.

강상현은 최근 강원도에서 열린 제4회 한국 중·고등학교 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 미들급에서도 우승하며 2개의 전국대회에서 금빛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백귀기자

## 남자프로테니스 투어, 조코비치 vs 나달

### BNL 이탈리아 인터내셔널 결승서 격돌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와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BNL 이탈리아 인터내셔널(총상금 520만7405유로) 결승에서 맞붙는다.

조코비치는 1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대회 7일째 단식 4강전에서세이코 슈와르츠만(24위·아르헨티나)을 2-1(6-3 6-7<2-7> 6-3)

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앞서 열린 경기에서는 나달이 스테파노스 치치파스(7위·그리스)를 2-0(6-3 6-4)으로 물리치고 먼저 결승에 올랐다.

조코비치와 나달의 결승전은 한국 시간 19일 밤 11시에 시작하며 스포츠 전문 케이블 위성 채널인 KBS N 스포츠가 생중계한다. 연합뉴스

| KBS1   | KBS2   | MBC  | JIBS/SBS  | EBS1   |
|--|--|--|---|--|
| 6:00 KBS 뉴스광장<br>7:35 KBS 뉴스광장 제주<br>7:50 인강극장<br>8:25 아침마당<br>9:30 KBS 뉴스<br>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br>11:00 다큐 공감<br>11:50 한식의 마음(재)   | 6:00 생방송 아침이 좋다<br>7:00 생방송 아침이 좋다<br>8:00 KBS 이브 뉴스타임<br>9:00 여름아 부탁해(재)<br>9:40 그녀들의 여유만만<br>10:40 지구촌 뉴스<br>11:00 국민 여러분(재)               | 6:00 MBC 뉴스투데이<br>7:00 MBC 뉴스투데이 제주<br>7:50 용왕님 보우하사(재)<br>8:30 TV 전국시대<br>9:30 930 MBC 뉴스<br>9:45 기분 좋은 날<br>10:50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재)   | 6:00 모닝와이드 1부<br>6:30 모닝와이드 2부<br>7:25 JIBS 뉴스<br>7:35 모닝와이드 3부<br>8:35 수상한 정보<br>9:10 좋은아침<br>10:10 SBS 뉴스<br>10:30 삼박자는 오늘<br>11:00 우리끼리 탐구생활<br>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 7:30 고고다노 공룡탐험대<br>8:00 땀방울 유치원 1<br>9:30 원더랜드<br>10:50 최고의 요리비결<br>12:00 EBS 정오뉴스<br>12:10 쿠키타임 스페셜<br>15:15 탐험 구조대<br>16:15 짝과 판<br>18:00 생방송 특특! 보나하니<br>18:25 로켓 발명왕 리스타2<br>19:00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br>21:50 다큐프라임             |
| 12:00 KBS 뉴스 12<br>13:00 네트워킹기획 문화산책<br>13:50 보물섬(재)<br>14:40 우영팻(재)<br>15:30 인도의 길(재)<br>16:00 시사건전<br>17:00 KBS 뉴스 5<br>17:30 동물의 왕국<br>17:55 나의 독립 영웅                                     | 13:10 트레킹노트<br>세상을 걷다 스페셜<br>14:00 KBS 뉴스타임<br>14:10 생생정보 스페셜<br>15:00 자동차부품회사 위키 2<br>15:30 TV 유치원<br>16: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br>17:00 영화가 좋다(재) | 12:00 12 MBC 뉴스<br>12:25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재)<br>13:35 헬리콥터 산비탈<br>자전거길 2<br>너는 내 운명(재)<br>13:55 2시 뉴스 외전<br>15:25 꼬마들 도도2<br>15:55 뽀빠이 모우야 놀자<br>16:55 아이돌타임 프리파라<br>17:25 빠샤 매거진<br>17:55 TV특강 스페셜 | 12:00 SBS 12뉴스<br>12:25 민방 네트워크 뉴스<br>12:40 JIBS 뉴스<br>12:50 동상이몽2<br>14:00 내 운명(재)<br>14:00 뉴스브리핑<br>16:00 JIBS특집<br>우리집 막동이 팟 스페셜<br>16:30 클릭! NOW제주스페셜<br>17:00 SBS 오뉴스<br>17:45 JIBS 뉴스                         | 제주 CBS FM 93.3MHz 90.9MHz<br>7:00 임의현의 아침뉴스<br>7:30 김형정의 뉴스쇼<br>12:00 CBS나눔뉴스<br>12:05 찬양이 있는 숲길<br>13:30 생명의 생<br>15:00 CBS 뉴스<br>17:05 시사매거진 제주<br>18:00 CBS 저녁종합뉴스<br>18:15 시사저기 정관용입니다<br>21:35 라디오강연<br>22:05 서연미의 가스펠 아워 |
| 18:00 6시 내고향<br>19:00 7 오늘 제주<br>19:40 본<br>20:1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br>대상 수상작 KBS 스페셜<br>20:30 여름이 부탁해<br>21:00 KBS 뉴스 9<br>21:35 KBS 뉴스 9 제주<br>22:00 가요무대<br>23:00 오늘밤 김제동<br>23: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 18:00 KBS 경제타임<br>18:30 2TV 생생정보<br>19:50 원순출이 아내<br>20:30 글로벌24<br>22:00 송림방의 문제아들<br>22:35 국민여러분<br>23:10 안녕하세요 1부<br>23:55 안녕하세요 2부       | 18:50 용왕님 보우하사<br>19:30 MBC 뉴스데스크<br>20:55 스테이트<br>22:00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br>22:35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br>23:10 다큐에이시 그 사람  | 18:00 순간포착<br>세상에 이런 일이(재)<br>19:00 열린예술무대 뒤란<br>18:00 SBS 8 뉴스<br>20:35 SBS 8 뉴스<br>20:55 생활의 달인 1부<br>21:30 생활의 달인 2부<br>22:00 초면에 사랑합니다<br>22:40 초면에 사랑합니다<br>23:10 동상이몽2<br>너는내운명 1부<br>23:50 동상이몽2<br>너는내운명 2부 | KCTV<br>7:00 KCTV 뉴스<br>8:30 내 별명은 대토령<br>9:30 헬로 코리아<br>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br>14:00 KCTV 뉴스<br>15:00 KCTV 다큐스페셜<br>15:50 KCTV 시청자세상<br>17:40 KCTV 세네한수<br>18:00 헬로 코리아<br>18:30 내 별명은 대토령<br>19:00 KCTV 뉴스 7<br>21:30 KCTV 종합뉴스  |
|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  |  |   |  |
| KBS ☎ 064-740-7331 / MBC ☎ 064-740-2432 / JIBS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748-7400   |  |  |   |  |

**오늘의 운세 20일**

김종상 지단(해)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노력의 댓가가 현실로 나타나니 인내하라. 준비된 자는 웃는다. 48년 부하직원에게 존경을 받거나 동료에 인정을 한다. 60년 자녀와의 대화가 필요하고 답답함을 해소하라. 72년 생각이 복잡하고 결정이 어렵다. 상의하거나 교육현장에서 정보를 활용. 84년 등산이나 여행 또는 낚시를 즐기기도 한다.

**42년** 학업이나 지연이 필요하고 단합하게 된다. 54년 기회 또는 통계분야 분주하고 이익이 따른다. 66년 갈등이 다가오니 오늘은 부지런하라. 78년 주변에서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거나 도움을 받는다. 90년 친구나 동료와 함께 대화의 즐거움이 있다.

**37년** 외출 또는 가정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진다. 49년 한약재로·건어물·수산물 증사자는 손님방문이 따르니 정리 정돈을 기본이다. 61년 시비나 구설이 오거나 주변일에 참견은 자제하고 가지말 것. 73년 새롭게 미래 설계, 계획이 필요한 시기다. 85년 내가 머문자리가 아담도복록 뒷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

**38년** 대인관계가 좋으면 명제가 따른다. 50년 마음의 문을 열고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을 유지하라. 62년 마음, 어깨가 무거워도 주어진 일에 전념하는 것이 상책이다. 74년 협조자나 동업자가 생기면 상의하여 공존공생하는 것이 유리하다. 86년 구설이 따르니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39년** 일이 호전되고 자녀와 관계된 일로 소식이 오거나 경사가 있다. 51년 애매한 행방이 구설이 되니 용기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63년 외도에 모임을 내거나 금전 지출이 따른다. 75년 재정이 지출로 갈등한다. 다툼은 화를 자초하며 내게 불리. 87년 기회가 자주오지 않듯이 결단이 오늘은 필요하다.

**40년** 오는 말은 고운데 가는 말이 곱지 않다. 52년 중상모략 또는 배신이오니 신중함이 필요하다. 64년 작은 이익이 있고 좋은 소식도 들려온다. 76년 유통업·미용·피부·뷰티업종 이익이 증가 또는 매매 등으로 이익이 생기기도. 88년 평생직장보다는 평생직업의 개념으로 자격증 취득 및 기술 습득.

**41년** 사업시 수의이 있고 몸이 바빠진다. 53년 기쁨에 대비가 내리듯 일이 막힌 사람은 일이 호전된다. 65년 부부간에 불화 갈등이 있고 자식이나 부하직원에게 문제 발생. 77년 직장 또는 애정에서 회소식이 오거나 맺을 낸다. 89년 기나긴 시간이 나에게 소중하니 초심을 잃지말 것.

**43년** 마음 조절이 때론 필요하다. 급한 성격은 불리하다. 55년 동업 또는 창업에 생각이 여념이 없다.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하라. 67년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개인사업은 원만하고 계약이 증가. 79년 신변에 위험이 따를수 있다. 조기 귀가, 과음을 피하라. 91년 많은 사람들과 친목이나 단합을 하게 된다.

**44년** 주변과 융화, 단합을 하게 되며 즐거움이 따른다. 56년 농·수산업은 새벽부터 바쁜 일과 계약일이 있다. 68년 하고자하는 일에 결과가 있으니 최선을 다하라. 80년 너그러움이 상대를 편안케 하고 유머가 필요한 날. 92년 불만이 때론 다가와도 겉으로 드러내지 말 것.

**45년** 하던 일에 변화가 오거나 변동을 주고 싶어 한다. 57년 약속 만남이 이루어지거나 여행할 일이 생긴다. 69년 과음은 불리하니 적당히, 차량은 대중교통. 81년 미혼자는 친구 결혼식에 참여하고 이성을 만나고 싶어한다. 93년 즐거움이 생기면서도 한편으론 허전함이 몰려오니 기대를 크게 하지 마라.

**46년** 투자나 재테크는 전문가와 상의하면 일이 풀려나간다. 58년 재물 지출이 따르고 정신적 고통이 따르니 금전에 신경을 쓸것. 70년 직업이나 업무의 변화 변동이 생겨 스트레스를 받는다. 82년 직업, 가정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미혼자는 결혼문제로 고민. 94년 말은 일을 잘 하라 정신적 고통이 따른다.

**47년** 배우자 또는 상대와 언쟁조심. 아침부터 언쟁이 쉽게 가라 앉지 않는다. 59년 교육, 펀드, 설계사에게는 몸이 분주, 활동 증가. 71년 이미지관리업에 인기가 있고 수입 증가. 83년 기쁜 일에 참여하면 지갑을 잘 챙길 것. 마음 고생이 있는 날. 95년 감정적 기복으로 대하면 야릇사람과 불화하니 마음을 넓게.